

◀하나님! 나의 하나님▶ **깊은 사랑**



아내가 어이없는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지 4년, 지금도 아내의 자리는 너무 크기만 합니다. 언젠가 출장으로 아이에게 아침도 챙겨 주지 못하고 새벽부터 집을 나섰는데, 몇번이나 전화로 아이의 아침을 챙기느라 제대로 일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이와 간단한 인사를 한 뒤 양복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 침대에 벌렁 들어누웠습니다. 그 순간 "푹! 슈~" 소리를 내며 빨간 양념국과 손가락만한 라면 가락이 침대와 이불에 퍼질러지는게 아니겠습니까? 물에 잔뜩 불은 끓는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는 뒷전으로 하고 자기방에서 동화책을 읽던 아이를 무작정 불러내 장판지와 엉덩이를 마구 때렸습니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해! 이불은 누가 빨라고 장난을 쳐, 장난을!" 다른 때 같으면 그런 말을 안 했을 텐데, 긴장해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의 울음 섞인 몇마디가 나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가스렌지 불을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는 아빠의 말이 생각나서 보일러 온도를 묵묵으로 누른 뒤 데워진 물을 컵라면에 붓고,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한 개는 출장 다녀온 아빠에게 드리려고 라면이 식을까 봐 제 침대 이불 속에 넣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했냐고 물었더니 출장 다녀온 아빠가 반가운 나머지 깜박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싫어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저는 수돗물을 틀어 놓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물자국을 매단채 잠든 아이 방문에 오랫동안 머리를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은 세련된 업적이 아니라
서투러도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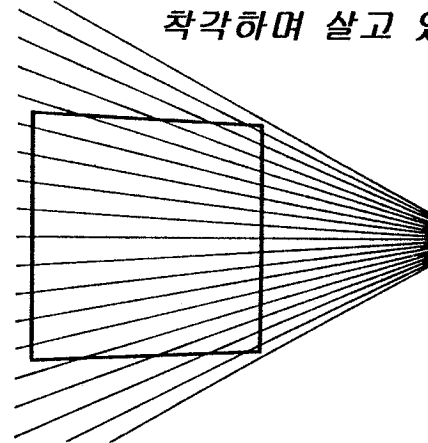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눈물나는 밤엔 우며의 첫발을**▶ **시험 때, 이런 애들 꼭 있다!**

- 【8위】 시험때만 되면 교육 현실 비판하는 애
- 【7위】 짤싸게 시험지 내고 복도에 나가 친구 이름 고래고래 부르는 애
- 【6위】 당일치기로 밤샘했는데, 시험 일정 잘못 알아서 그 다음날 것 공부해온 애
- 【5위】 컨닝 패이퍼 밤새도록 만들고 아침에 책상에 두고 온 애
- 【4위】 자기(50등)랑 똑같은(49등) 답안지 컨닝하고, 보여줘서 고맙다고 떡볶이 사주는 애
- 【3위】 책에다 온갖 색깔의 형관펜에다 포스트잇까지 붙여가며 공부하고 손에 색연필 4자루 들고 바껴가며 즐치고는 막상 시험때 글자는 생각안나고 색깔밖에 기억 못하는 애
- 【2위】 공부 안한다고 꾸중하는 부모에게 요즘 비판 자살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고 외쳤다가 부모님께 더 두들겨 맞는 불쌍한 애
- 【1위】 "넌 원래 머리가 좋운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라는 엄마 말씀 듣고 괜히 잘 지내던 친구들이랑 절교했다가 성적 더 떨어져서 비판하는 애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4권 32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8월 11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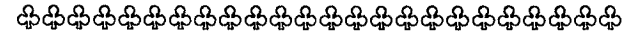


그림속의 사각형은 이지러져 보이지만 비스듬히 세워보면 정사각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 앞에서 있지 않은 한 아무리 세상의 빛 속에서 바른 삶을 살려해도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이지러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어느날 천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답하셨습니다.

- 『어려서는 지겹다고 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크고 나면 다시 한번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
- 『돈 번다고 건강을 있는 대로 망가뜨리고 나서는 건강을 되찾겠다고 있는대로 돈을 써 버리는 것』
- 『미래를 알겠다고 안달복달하면서 결국 현재에도 충실치 못하고 미래를 대비하지도 못 하는 것』
- 『살아서는 언젠가 죽을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듯이 놀다가 막상 죽을 때 되면 하루도 못 살아 본 것처럼 구는 것』

엄마가 딸에게

인기에 너무 연연하지말아라
여러 사람들의 박수보다는
하나님 한 분의
박수를 의식하고 살아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배를 멀리하거라
영화속의 멋진 장면에 속지 말아라
금연 표시를 피해 한 귀퉁이에서 피는
초라한 사람들을 보아라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
*찬송 Hymn	47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22(시 96)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찬송 Hymn	466 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정덕수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2:22-31(신 115)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염려를 맡기고'	김성국 목사
찬송연주 Hymn	499장	연주자
헌금기도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김종우 집사 가독, 2절:다같이)	다 같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도자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8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안내위원	가족찬송	Tea Time
4	김교섭	이지영	박병민.이기중	김종건	김현수.남형진
11	정덕수	정희자	박상옥.이금선	김종우	민광호.박기원
18	김종건	최기향	박정자.정희자	김종원	박병민.박상옥
25	이광희	최재학	양경배.김동숙	김현수	박일영.사카시타

일자	주 일	주중 모임
11	광복기념주일 식사친교주일	김동호 목사 1일 사경회(12일) '믿음의 어머니'기도회(13일) 결식자 식사봉사(17일)
18		항존직 회의(19) '약속의 아비'기도회(20일)
25	이삭줍기 주일	여선교회, 당회(26일)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 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닭살돋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수요예배: 저녁 7:30 아동.학생부:주일 낮 12시 청년부:토 저녁 6시	

◀고국은 "입추"(7일)를 지냈습니다. "여름 거지, 겨울 부자 안 부럽다"며 날씨가 더워 집안에 갇출 것이 많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잊고져 여름인데 어느새 시골에서는 벼와 잡곡들이 익어 논밭에는 허수아비를 세워 참새 떼를 쫓고, 슬슬 이른 발작물부터 한 가지씩 갈무리할 시기가 왔습니다. 붉은 고추 따서 말리고, 참깨, 들깨 뽑아 말려 털어내고...아이들은 콩튀기도 해 먹고 놀았던 가을. 빼지기도 잘하고 풀어지기도 잘했던 그 시절의 친구들이 가을이면 더 그립습니다. 독일어 시인 라이너 마리아릴케가 남긴 입추절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 김동호 목사("높은 뜻 승의교회") 1일 사경회
***<일시> 내일(12일.월요일) 저녁 7시. <장소> 교회당**
*그동안 한번도 쉬어본적이 없어 이번엔 말 그대로 휴가위해 오신다는 김동호 목사님께 예정에 없던 집회를 어렵게 부탁드렸습니다. 이웃과 함께 귀한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교우들께서는 주차를 U-BIX나 교회와 좀 떨어진 곳에 주차하셔서 다른 분들께 주차장을 양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ea Time봉사> 노은숙 권사. 제2여선교회 <주차안내>봉사부와 제2남선교회 <본당안내> 안수집사. 권사 <본당 의자배열> 청년부
- 오늘 식사친교주일: 제1여선교회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믿음의 어머니'기도회: 화요일(13일) 저녁7:30. 교회
- 결식자 식사봉사: 17일(토) 오전10시-1pm. 제1여선교회.
- 특별초청 수요찬양예배(예고): <일시> 9월 4일(수) 수요예배 7:30 pm <장소> 본당
*오글랜드 여성 중창단 "살롬"과 남성 중창단 "익투스"의 영감있는 찬양을 통해 은혜의 수요예배가 될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는...▶
서울 남산 아래자락에 자리한 '높은 뜻 승의교회'의 김동호 목사. 동안교회를 6천명이 넘는 대형교회로 성장 시킨 후 '교회가 목사 한 사람에 의존해 성장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며 11년간 정이 든 동안교회를 떠나 개척교회를 세우겠다고 공표했다. 기왕 새로 시작하는 길에 예배당 없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세워진 승의교회의 첫 예배는 지난해 10월 7일 승의여대 소강당에서 99명의 신자들과 함께 열렸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 교인수는 1천1백명으로 불어났다.
"큰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관중같았는데, 그 99명이 수천명보다 더 커보였어요. 여기서는 1명이 오는게 새로운 거예요. 진짜 목사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승의여대 강당을 빌리기로 하고 수리하고 있어요. 교회가 학교시설을 공유하는게 가장 효율적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학교는 평일에, 교회는 주일이나 야간에 쓰면 낭비도 없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쉽게 해결되고 좋아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너무 교회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러다보니 교회일만 열심히 하고 사회에는 적응하지 못하는 '이상한 종교인'도 생겼지요. 건실한 사회인,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교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중앙일보에서-